

김주필 주필거미박물관장
“재산은 후손에게 물려 주는 것
아닌 세상에 되돌려 주는 거죠”
12·13면

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자기 마음의 번뇌를 없애야 한다.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4월 16일) · 주간

제 992호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서구중심 세계불교학 이제 동아시아가 주도

5월 9~10일 동국대서 제1회 동아시아 불교학 국제학술대회

근대 동아시아 불교학 발전을 주도해 온 일본, 동아시아 불교 종주국의 중국, 현대 불교연구의 새 장을 열어온 대만, 그동안 각국 자존심 등으로 한데 모이지조차 힘들었던 동북아시아 4개국의 불교학계가 통불교(通佛敎)를 주창해 온 한국에서 세계 불교학을 주도하기 위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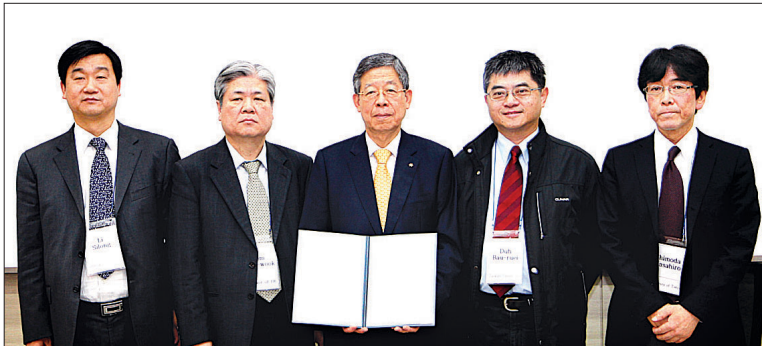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연구단(단장 김종욱)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동국대서 중국의 북경대, 일본의 동경대, 대만의 대만국립대가 참여하는 제1회 불교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108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자리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쫓겨있던 불교학 연구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었다. 자리는 동국대 측이 마련했지만, 각국 불교학계는 체류비 등 일체 비용을 각자 부담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4개국이 2명씩 발표자로 나섰으며 브리티시 콜롬비아대와 두크대 등 서구불교학을 대표한 학자 2명도 추가로 발표했다.

9일 첫 행사로는 김희욱 동국대 총장과 김종욱 인문한국연구단 단장, 리스롱 북경대 교수, 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교수, 무바오루이 대만대 교수가 함께 4개 대학이 향후 학술대회를 비롯해 워크숍 등 교류 행사를 지속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어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갔다.

제1회 국제학술대회는 ‘근대불교학의 동아시아 전경’과 ‘동아시아 불교의 다양한 시선’의 두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리스롱 북경대 교수는 불교연구는 인문학 중 가장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돈황 문서 등 새로 발굴되는 신자료를 활



학술교류 MOU를 체결한 각 대학 대표들. 왼쪽부터 리스롱 북경대 교수, 김종욱 HK 단장, 김희욱 동국대총장, 무바오루이 대만대 교수, 시모다 동경대 교수

용한 불교연구의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무바오루이 교수는 고전적 학문연구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시키는 불교방법론을 위해서는 실천을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경대·동경대·대만대 참여
각국 불교학 연구 동향 논의
“東亞 불교학 잠재력 무궁무진”
격년 국제대회 위한 MOU 체결
7일 동국대 108주년 기념식도**

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교수는 불교의 역사를 서사-목판-활판-서적-디지털텍스트라는 매체 발전에 따른 재배치의 역사로 보고 차세대에는 다량으로 제시된 텍스트를 질적으로 비판하는 불교 해석학이 자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김용태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근대연구방법론이 일본을 통해 들어왔지만 일본 연구 풍토의 영향을 극복했다”며 “한국 불교는 중국, 일본과 다른 고유특성을 가지지만 상호성, 보편성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 중국, 일본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발표자로는 캐나다 콜럼비아대의 쉐진화 교수가 지난 20년간 서구에서의 동아시아 불교연구 동향을 설명하며 선불교와 불교예술이 학문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불교와 도교 등의 교단관계에 대한 연구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신라 원효 스님을 통해 한국불교 전통과 교유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원효 화쟁 회통의 논리는 쟁점을 뛰어넘은 통합과 무종파 지향의 성격을 띠며 이것이 한국불교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장은 “동아시아 인문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아시아의 세계불교학 주도는 이제 첫 발을 뒀다. 격년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순환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7일 개교 108주년 기념식을 열고 자랑스러운 동국불자 상으로 광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임현장 건설관리팀 직원을 선정해 일본을 통해 들어왔지만 일본 연구 풍토의 영향을 극복했다”며 “한국 불교는 중국, 일본과 다른 고유특성을 가지지만 상호성, 보편성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 중국, 일본



조계종은 5월 6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시는 비극 없도록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박근혜 대통령, 6일 봉축 법요식 참석… 역대 대통령 중 최초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 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6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찾아 적폐를 척결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또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5월 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로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찾아 적폐를 척결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또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무량수 무량왕 왕생발원’ 영가 등 달아
“수장으로서 마음 무겁다” 사과 및 밝혀**

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며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

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는 부처님의 경구를 상기한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척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면서 “국난마다 불교의 가르침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했다. 불교가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상의 원편에 ‘극락왕생 무사귀환’이라고 적힌 노란색 리본을 달았다. 또한 조계사 극락전 앞에는 박 대통령 명의의 흰색 영가등이 달렸다.

박 대통령은 이 등에 ‘세월호 희생자 무량수 무량왕 극락정토 왕생발원(복숨이 끊어지고 빛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 다시 오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이라고 썼다.

(봉축 관련 기사 3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 피해 지원위해 자비 회사

종정 진제 스님, 1천만 원 전달… ‘동행’은 안산사암련 지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세월호 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기탁했다.

진제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월호 여객선의 비극적 참사에

대해 여러 차례 국민 모두와 함께 아픔을 표시했고,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진제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극락왕생 발원, 무

사귀환의 등을 밝혀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자”고 했고,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희망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안산사암련합회에 500만 원을 5월 1일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승 스님은 이사장 자승 스님을 대신하여

안산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활동을 격려하고 희생자 애도에 동참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유가족과 마음을 함께하며 지원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지 바란다”며 이사장 자승 스님의 말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4월 23일 세월호 침몰 이후 자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도사암련합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992호 INDEX

불자불자들 푸른 눈 수행자 아산 브라함 방한	4
함께가요 강의실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6
마음 달라이 라마 '마음 길들이기'	19
익산 심곡사7층석탑 성보 문화재 보존 처리 완료	2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현 불 샵 단독입점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촛대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용 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